



사회 >> 3면

'기후 악당' 한국... '기후특위' 언제 정상 가동되나

기획 >> 6면

구독 서비스,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다

현장르포 >> 7면

전동 키보드의 두 얼굴

제584호

2025년 1월 31일(금)

## 2024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학우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됐나



지난 10월 7일 18시 30분, 서경대학교 문예관 문예홀에서 2024학년도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제52대 한숲총학생회 주관하에 개최된 본 회의는 "작은 결정들이 훗날 학생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개최사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식순은 △결산보고 △학사 구조 개편 현 상황 보고 △활동보고 △공약 보고 △사전 질문 스키타 및 건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사무국장장은 신입생 문화제, 확대간

부수련회, 동아리 알림제, 해오름제, 대동제, 플로깅, 청야제전 등에서 사용된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이어 2025학년도 무전공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학사 구조 개편의 현 상황을 알렸다. 첫 번째로, 미래융합단과대학 신설로 인해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학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학교 측이 △현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사 과정 보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가 예산 학생 복지 및 혜택 증진에 사용 △위 모든 과정 공식적 문서화를 요청했

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무처 전화 응대, 일체형 책상 교체, 교수진 확대 및 증진, 시설물 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답변이 오는 즉시 총학생회 블로그와 본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할 것임을 알렸다. 활동 보고에서는 천원의 아침밥을 북악관에 위치한 GS25에도 확대해 더욱 다양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식 공간을 개설해 학우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동제, 중간고사 간식 지원, 도전 제주탐험대 플로깅, 청야제전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학사복 대여 사업과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썼음을 알렸다. 다음으로, 공약 이행 및 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한숲총학생회는 대학 인근 100여 개 상권과 제휴를 맺었으며, 셔틀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북 07번 버스 노선들을 스포렉스 앞까지 운행하는 안을 성북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약이었던 취업 정보 및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다른 대의 활동 프로그램 개설을 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교내 홍보단 '은빛' 신설을 통한 학교 홍보 강화, 중앙감사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한 투명한 감사가 가능해졌다. 사전 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의실 의자 교체 및 수리과 관련해 시정각실 공사를 차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헤인관 와이파이 개선과 관련된해서는 보안의 이유로 공유기 설치 불가하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헤인관 내부까지 퍼지는 담배 연기를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공지할 예정이며, 스콘 스퀘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학대회는 기타 및 건의안건에서 학우들의 현장 질의를 받은 후 마무리됐다. 한숲총학생회는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학생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회의를 마쳤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뚝뚝' ...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2024 SKU JOB FIESTA', 성황리에 마무리

서경대학교가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 돕기 위해 나섰다. 서경대학교는 지난 9월 24일 유담관 1층에서 동문과 함께하는 진로취업박람회 '2024 SKU JOB FIESTA'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와 산학협력단, 서경SW아카데미사업단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후원했다. 이날 재학생 1,500여 명과 미취업 졸업생, 지역 청년들이 참여했다. 박람회는 '직무 ZONE', '채용 ZONE', '홍보 및 컨설팅 ZONE', '이벤트 ZONE'으로 구성됐으며, 참여를 독려하는 스탬프 투어와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 직무 ZONE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수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가 참여해 직무에 대한 소개와 현실적인 조언, 취업에 필요한

준비 과정 등을 공유했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미용예술 및 디자인 영상 계열로 구성된 부스는 종료 직전까지 상담 대기 줄이 이어지며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채용 ZONE에서는 7개의 참여 기업이 채용 프로세스 및 채용 정보를 제공했고, 홍보 및 컨설팅 ZONE에서는 교내 학술정보관 프로그램 안내부터 창업 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홍보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가드) 소개 등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가 가득했다. 상담 센터에서는 '격정 인형 만들기' 체험과 뇌파 검사를 진행했으며, 뇌파 검사는 다음 날 청운관 3층에서 추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유담관 밖 분수대 앞에서는 떡볶이와 어묵 등 분식이 준비돼 있어 진로 상담 후 간식 쿠폰을 받은 학우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벤트 ZONE에서는 스탬프 투어

경품 수령 및 추첨 경품 응모가 가능했다. 많은 참여로 스탬프 투어 경품이 빠르게 소진돼 아쉬워하는 학우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행사 막바지에 진행된 경품 추첨 행사 역시 북적였다. 추첨을 통해 뽑힌 1, 2, 3등 학우들은 각각 아이폰, 버즈 2 프로,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의 행운을 누렸다.   
[학우 인터뷰] - 이동찬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1학번)   
Q. 진로취업박람회에 참가하며 느낀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학년별로 목적이 잘 나뉘어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1~2학년은 진로 탐색, 3학년은 업계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 4학년은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과 같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알려주는 등 학년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구분 지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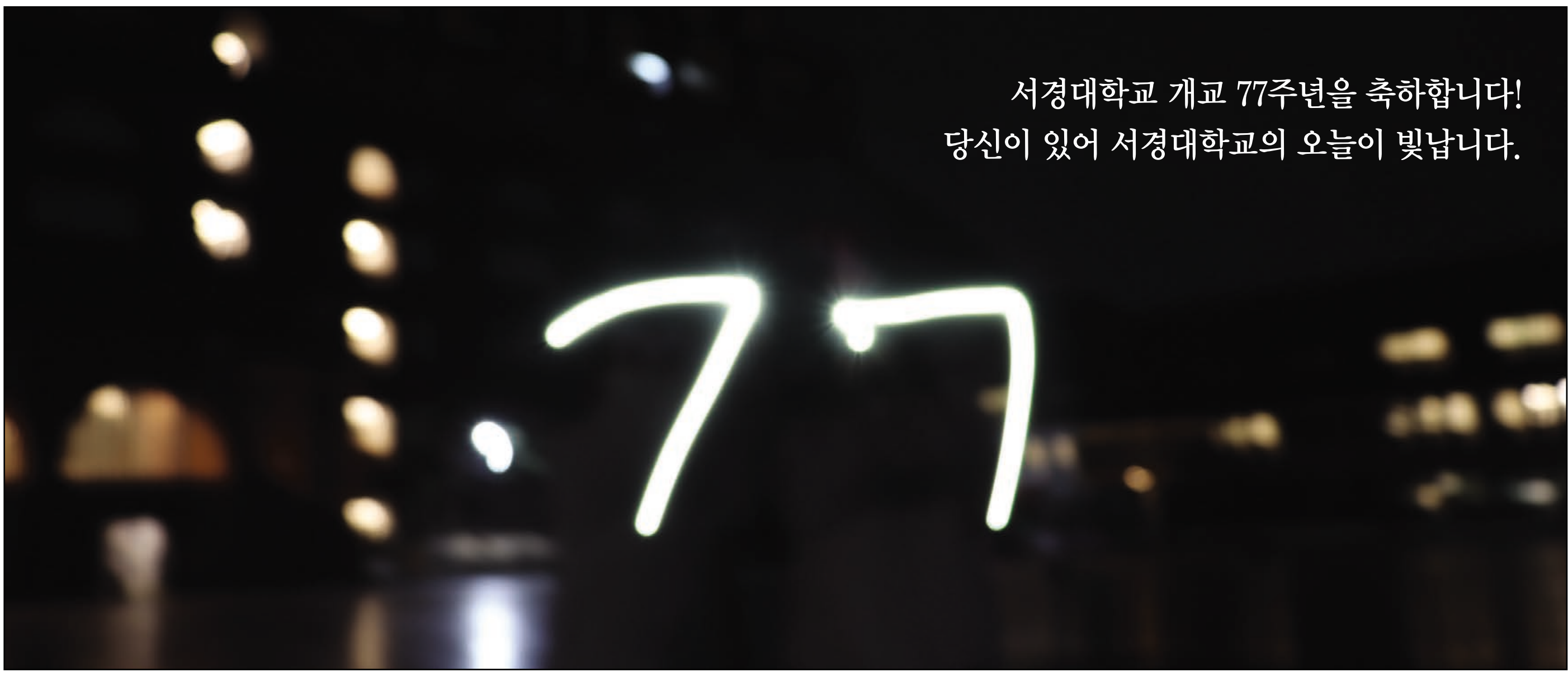
은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고 왔는데, 학년별로 나눠주니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Q. 반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경영같이 특정과의 선배들만 왔던 점이 아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과별 선배들의 취업 후기도 알고 싶습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 ZOOM UP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카리스마 넘치는 학교 보안관

김나연 기자



# “내 진로 목표와 손잡기”... 대플 ‘서경인 진로 잡(JOB)는 날’ 개최



지난 10월 11일(금)과 18일(금)에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 대플)가 주관한 '2024학년도 2학기 서경인 진로 잡(JOB)는 날'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청년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신청자는 회차별로 선착순 30명에 한했다.

“서경인 진로 잡(JOB)는 날”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와 학년별 필요한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하반기 집중 취업 기간 동안 진행됐다. 1회차 강의는 △eDISC 검사 등을 통한 심리검사지 해석 △개인 가치관, 직업 가치관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 △만다라트 계획표 안내 및 작성 순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간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eDISC 검사를 통해 개인의 의식적·무의식적 행동 성향을 분석하고 행동 성향에 따른 직무 매칭 및 직무를 탐색했다. 또한 키워드를 통한 개인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직업적 가치를 검사했다. 학생들은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해 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2회차 강의에서는 진로 로드맵 작성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직접 로드맵을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회차 강의를 통해 탐색한 가치관과 목표를 구체화해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본 행사를 총괄한 서경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박소령 컨설턴트는 “아직 진로가 설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진로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바라는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학기 말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 밝히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직무 포트폴리오 완성 특강’ 열어...

### 질의응답과 1:1 피드백 통해 학생들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 대플)에서 지난 10월 11일과 10월 18일 총 2회에 걸쳐 ‘2024학년도 직무 포트폴리오 완성 특강’을 열었다. 해당 강의는 두 차례 모두 북악관 1층 102호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120분간 진행됐다. 특강 첫날인 10월 11일에는 초

청 강연을 통해 △나만의 강점 찾기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작성법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사례 분석 △디자인 원칙 및 도구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이어 특강 둘째 날 10월 18일에는 △포트폴리오 초안 1:1 피드백 △포트폴리오 작성 및 레이아웃 점검 등 실습과 피드백이 오갔다.

총 20여명의 재학생과 지역 청년이 강의에 참석해 본인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법과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배웠다.

대플 관계자는 “서경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강연과 더불어 진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해석, 면접 서류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진로·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얻고 싶은 학생은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홈페이지(<https://job.skuniv.ac.kr/>)나 인스타그램(@seokyeong\_job)을 방문하면 된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서경대학교 1기 홍보대사, ‘온빛’을 만나다

서경대학교에 학생 홍보대사가 나왔다. ‘서울의 중심 대학 서경대학교, 공부도 취업도 창업도 서경대학교...’(후략)라는 가사로 구성된 서경대 라디오 광고 CM송에 대한 불멘소리가 계속되자 제52대 한술 총학생회는 세 번째 공약이었던 홍보단 신설을 이행하기 위해 1기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경대학교 홍보대사 ‘온빛’ 1기가 신설됐다.

지난 2학기, 본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첫 학생 홍보대사로 출범한 온빛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단장, 부단장, 기획팀, 디자인팀으로

구성된 온빛은 앞으로 활발한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내외에 서경대학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지닌 온빛 1기 단장 이희원(불어 21) 학우를 만났다.

Q. 본인 소개와 온빛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홍보대사 온빛 1기 단장 이희원(글로벌 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입니다. 온빛은 이번에 처음으로 서경대학교에 생긴 홍보대사이며, ‘온 세상에 서경을 빛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서경대학교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된 연유와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A. 학교에 처음 생기는 홍보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꾸러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Q. 지난 청야제전 개막 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며 부스를 운영

하셨습니다. 어떤 부스를 운영하셨고 학우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 온빛을 홍보하는 홍보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학우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식과 팝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빛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증가를 최우선 목표로 생각했는데, 당시 200명 가까운 팔로우 증가가 있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Q.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뿌듯함이나 학교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A.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애교심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서경카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학우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사진 같은 것도 찍어 주시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홍보대사 1기인 만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나 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도 한가요?

A.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사를 하나 진행하는데 있어 예산안을 비롯한 필요한 문서의 틀부터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선례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어렵습니다.

Q.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에 있

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학생들이 읽기 편하게, 정보 뿐만 아니라 재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한 학생들의 애교심 향상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Q. 앞으로 예정돼 있는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미정이지만 스콘 캐릭터를 귀엽게 변형하는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고, 수상 작품은 학교 굿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러한 귀여운 학교 굿즈가 작지만 학우들의 애교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Q. 온빛 홍보대사 활동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한정돼 있으므로 홍보대사 활동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 작업, 디자인 등의 실무적인 역량,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사회성 등 여러 방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면 추천합니다.

송민경 기자

(lildawn012@skuniv.ac.kr)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머리는 무겁게, 배는 든든하게... 중간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 성료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경대학교 2024년 2학기 중간고사가 실시됐다. 이에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한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술 총학생회는 10월 17일 14시부터 북악관 앞에서 햄치즈포테이토 토스트와 닭강정, 콜라를 배부했다. 새솔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는 10월 17일 12시부터 청운관 810호에서 간식 꾸러미를 배부했다. 우연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10월 16일 청운관 1층에서 봉구스 밥버거와 육개장 컵라면, 카프리션을 배부했다. 불패무적 이공대 학생회는 10월 17일 북악관 앞에서 빅맥과 콜라를 배부했다. 울림 예술대 학생회는 10월 16일 13시에 청운관 1층에서 샌드위치와 미니 과일, 피크닉을 배부했다.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는 10월 16일 12시에 청운관 1층에서 엽기 떡볶이 2인

과 몬스터 에너지를 배부했다. 모든 간식 지원은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출처: 서경대학교

## 한 눈에 보는 이슈

### 정치

재앙 수준 이상기후 속 ‘기후 악당’ 한국... ‘기후특위’는 언제 정상 가동되나

### 경제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민·쿠팡이츠 신경전... 업계 반응은 ‘피차일반’

### 사회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 공정위 제재에 국내 음원 시장 도약할까?

### 문화

웃음 뒤에 숨겨진 독침, SNL의 풍자 아닌 조롱?

### 연예

MBC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확산... 유족 측 “가해자 사과도 없어” 소송 제기

### 스포츠

8년 만에 돌아온 동계 아시안 게임... 韓 하얼빈서 ‘효자 종목’ 메달 노린다

자세히 보는 이슈

# 재앙 수준 이상기후 속 '기후 악당' 한국... '기후특위' 언제 정상 가동되나



▲ 출처 : 이소영 의원 인스타그램

지난해 10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에 도전했다가 실종됐던 등반가의 유해가 100년 만에 발견됐다. 이번 유해의 발견으로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기록이 뒤바뀌지 세계 산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끝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구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조명한다. 유해가 100년 만에 드러난 계기가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베레스트의 해빙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며 나타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보냈다. 모든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열대야가 9월까

지 이어졌다. 이례적인 기록을 낳았다. 이외에도 폭우, 한파, 가뭄, 집중호우, 병충해 등이 기승을 부렸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자명해지자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이고 배출한 양만큼 흡수·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른바 '탄소중립·녹색성장'이 세계 정치 트렌드가 된 것도 그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중기 목

표가 설정된 국가 기본계획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환경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 1위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외 여야 7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기후 위기 대응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며 기후특위 설치를 재차 성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해 최악의 국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은 최고의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미 제정된 법과 정책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계획이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아 미

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설치해 기후 대응 정책을 의논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을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기후특위 설치 및 상설화 관련 안건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특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기후특위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출처: 세계일보]

그러나 모처럼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낸 기후특위 설치안은 아직 첫 걸음도 채 밟지 못했다. 국회의 질박성 부족과 기후특위 권한 범위 조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러 특검법과 탄핵소추로 인해 기후특위 구성은 국회 우선순위에 밀리기만 반복했다. 또한 현재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기후특위에 예산심사권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이에 여야 7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기후 위기 대응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며 기후특위 설치를 재차 성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해 최악의 국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은 최고의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미 제정된 법과 정책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30년 이후의 계획이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아 미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민·쿠팡이츠 신경전... 업계 반응은 '피차일반'



▲ 출처 : 뉴스웨이

지난 9월,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 소비자 사이에서 이중가격제가 논란의 화두로 올라섰다. 이중가격제는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 지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즉 같은 메뉴 입에도 매장 판매가와 배달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중가격제는 이전부터 공공연히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러 프랜차이즈의 이중가격제 공시화, 입점 업체 간 이중가격제 확산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중가격제의 배경으로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꼽히고 있다. 최근의 배달 수수료 증가, 유료 멤버십을 통한 무료 배달의 대가가 입점 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 기형적인 이중가격제 행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중가격제를 둘러싼 실용설화에 배달플랫폼 2, 1위를 다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9월 24일, 쿠팡이츠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에 따른 고객 부

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특정 배달플랫폼을 언급하며 해당 배달플랫폼이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을 자행하고 있지만 당사는 그렇지 않으므로 호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특정 배달플랫폼이 사실상 배민으로 추정돼, 두 업체 간의 신경전이 불붙었다.

배민은 "쿠팡이츠 측이 가게배달 서비스와 자체 배달 서비스를 교묘히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자체 배달 서비스와 업주가 배달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 배달하는 '가게배달'의 차이를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민 측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법정 대응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두 배달플랫폼의 요금제 구조 자체가 현 상황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배달 요금 무료를 위해 배민

과 쿠팡이츠가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요금제 개편안, '배민1플러스'와 '스마트 요금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고정해 놓는 방식이다. 가격결정권을 박탈당한 입점 업체는 9.8%의 수수료와 배달 요금, 결제 수수료 3%,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는 입장이다. 주된 견수와 매출이 증가할수록 플랫폼에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이중가격제의 성행은 필연적이라는 평이다. 무료 배달을 위한 요금제가 입점 업체의 부담을 늘리고, 이로 인한 이중가격제로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7월, 관계 부처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를 출범했다. 11차까지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 11월 14일, 중개 수수료를 2.0~7.8%로 차등화하는 것에 극적 타결했다. 양측 모두 한발 물러나 타협을 본 결과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의 중개수수료를 최대 7.8%포인트 인하하는 상생 요금제를 2월 26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상생 요금제를 둘러싸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개인 자영업자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공정위 제재에 국내 음원 시장 도약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를 앞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에 나섰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독 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발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국내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끼워팔기 논란이 된 이유는 일부 유럽 국가와 다른 우리나라의 요금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존재한다. 이는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제거 기능만으로도 구성된 요금제이며, 기존 프리미엄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금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요금제, 학생 요금제와 같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없다. 오직 유튜브 뮤직만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요금제와 서두에 언급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만 존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는 것은 공정한 음원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유튜브의 영향력이 음원 시장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 모바일인덱스의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유튜브 뮤직이 국내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포티파이 무료 요금제 도입 등으로 인해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인 지니뮤직(KT), 플루(SKT)의 점유율 하락도 더욱 커지는 추세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 결정 발표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소비자도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침해하고,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제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SNS로 확산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 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는 별개로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이데일리] 과연 제재 결과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같은 요금제가 한국에서도 출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재가 한국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 웃음 뒤에 숨겨진 독침, SNL의 풍자 아닌 조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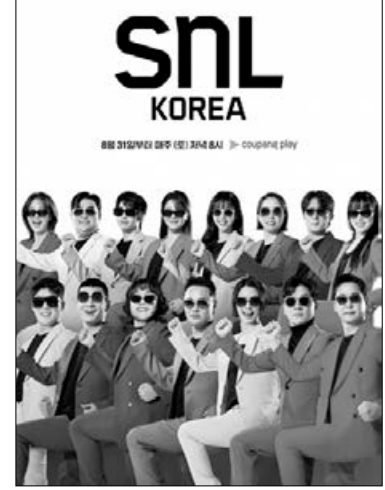
지난 10월 19일,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된 'SNL 코리아 시즌 6'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회차에서 국경감사에 출석한 뉴진스의 멤버 하나를 따라 한 장면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베트남 뮤직이 국내 토종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포티파이 무료 요금제 도입 등으로 인해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인 지니뮤직(KT), 플루(SKT)의 점유율 하락도 더욱 커지는 추세다.

한편, 공정위의 제재 결정 발표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소비자도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침해하고, 국내 토종 음원 플랫폼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제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SNS로 확산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 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취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는 풍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대중문화 콘텐츠가 웃음을 이끌어내는 데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풍자는 넌지시 비꼬면서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다. 즉, 사회적 모순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이다. 이는 웃음을 통해 현실을 성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자의 본질이다. 하지만 최근 SNL의 패러디는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 단순히 일차원적인 웃음만을 갈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실소를 터뜨리게 하려는 유머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대중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문화 생산자들이 대중들의 반응을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매일경제

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념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없없이 반복되고, 정보의 왜곡과 선동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풍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평등 문제나 정치인의 부정부패, 혹은 권력자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풍자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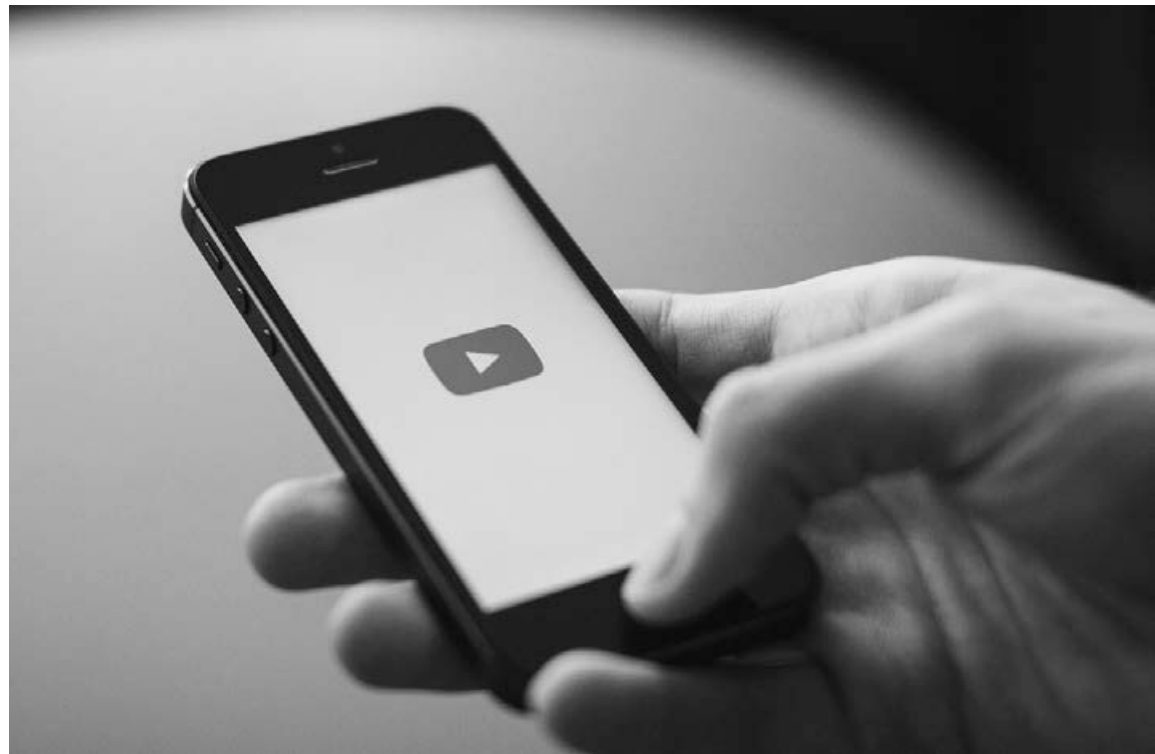
그러나 풍자는 중요한 비판의 도구일 뿐, 특정 인물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자는 권력이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것이지, 개인을 희롱하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풍자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시민 인터뷰]**  
- 박태현 (34세)

Q. 풍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첨



▲ 출처 : pixabay

#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사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오늘 우리 서경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서경대 가족은 물론, 서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큰 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의 서경을 일구어주시던 역대 법인 이사장님과 총장님, 교수, 직원, 졸업생 여러분께 더없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1947년 '한국대학'으로 개교하여 1955년 '국제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1992년에는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며 '창조적 실용주의'에 기반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써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 많은 엘리트들을 배출하며 국가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교는 '실용과 혁신을 최고가치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수요와 시대 요구에 부응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 과정과 시스템을 혁신하여 산학 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대학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융합학부 1·2와 자유전공학부 등 첨단학부를 신설해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전공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등 미래 교육 혁신에 교수와 학생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생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AR, VR 및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며, PBL 교수법, Edu-Tech 기반 수업 등 미래형 대학 수업 혁신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혁신지원사업,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사업, 소프트웨어분야 전문인재양성사업,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주요국가학생초청연수사업, 해외취업연수사업, 찾아

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등 정부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미래 신산업 대응 전문인재 양생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외국인 대상 K-Culture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Quality of Life 사업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 산학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 및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교육 혁신과 학습 방법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AI에 기반한 교수·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수진은 데이터를 활용해 더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학생들의 학업 진도 및 성취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연구 및 혁신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친애하는 서경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대학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학생의 성공과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의 성공이 대학의 성공인 대학, 학생의 미래가 대학의 미래인 대학, 학생은 대학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대학은 학생이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공에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학문을 포괄하여 통합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해야 할 학생들이 장차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틀과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게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며 큰 질문을 던지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혁신해 생각의 능력을 키우고 모든 경험과 도전이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 연계 교육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실용 학풍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개별 학과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 가족 여러분!

개교 77주년을 맞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무엇이든 그 중심에는 우리 서경 가족 여러분의 서경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경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서경을 일구어 온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서경의 가장 값지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교 77주년의 감격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욱 실용적인 대학, 더욱 첨단에 서있는 대학, 더욱 국제적인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식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중휴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중휴입니다.

우리 대학의 77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이렇게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개교기념일은 과거의 건립을 기념하는 날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헤쳐 온 수많은 도전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변화를 아로새기며 고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 전형의 변화, 새로운 청년 정책 등 매우 급격한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경대학교는 '실용'이라는 교육 가치를 두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여 오늘의 77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대학교는 1947년에 설립된 이래,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내일을 다지는 노력들이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7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대학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선배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대학이 교육 이념과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숲 총학생회의 슬로건과 취임사에 담긴 글처럼, 학생 사회를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숲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서재완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19학번 서재완입니다. 개교 77주년을 맞아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서경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47년 개교한 서경대학교는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헌신하며 지금의 서경대학교를 만들어왔습니다. 지난 77년 동안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동문과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특히, 서경대학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서경대학교의 정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7년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서경대학교의 발전과 더 나은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숲 총학생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학우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4대 새늘 인문대 정학생회장 최창조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대 새늘 인문대 정학생회장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는 한국대학이라는 교명으로 1947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심어주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실용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입니다.

저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다양한 기회들이 상시 준비되어 있으니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나 진로 취업 지원센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학우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학교에 대해 인상 깊게 느낀 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경대학교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및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담관에서 진행하는 현직자 직무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늘 문자로만 받아보던 프로그램에 올케가 되어서야 직접 참여해 보았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의 마음이 느껴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경대학교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미래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사회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서경대학교가 100주년을 넘어 아득한 미래까지 무궁히 발전하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고우리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연결고리,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군사학과 21학번 고우리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의 역사적인 한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지난 77년 동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경대학교는 교육의 기본을 지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서경대학교가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의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교수님들과, 학교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날 서경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서경인들은 든든한 터전 아래서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서경대학교는 그동안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한편,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대학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가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요량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서경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서경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와 모든 서경인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취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현성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경대학교 학우 여러분 제33대 불패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토목건축공학과 20학번 이현성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적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음에 큰 의미를 느낍니다.

서경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쳐,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하나 쌓여온 노력의 결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공대학 학우분들을 포함한 모든 학우분들이 학교의 발전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전공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도전"입니다. 서경대학교 학우분들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쌓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들이, 앞으로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날개를 펼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구성원의 앞날에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6대 통합 울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하예빈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6대 통합 울림 예술대 정학생회장 디자인학부 20학번 하예빈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 통합 예술대학의 대표로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서경대학교는 7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실용이 최고의 가치'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교육으로 융합인재를 발전시켜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분야는 무엇보다 열정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서경대학교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2024년도는 유독 바쁘고 보람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단과대학의 대표로 일하며 처음 경험해 보는 자리에서의 배움은 늘 즐거웠습니다. 입학식부터 대동제, 청아제 등 많은 행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학교와 학우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경대학교 안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연말도 건강히 맞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서경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송유진



안녕하십니까?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아동학과 21학번 송유진입니다. 우선 서경대학교의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2월, 신입생 입학 축사를 쓰던 게 엇 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개교기념일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순간을 축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서경대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성장과 배움으로 가득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는 행운과 변명을 상징하기에, 77이라는 숫자는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서경대학교는 지난 77년 동안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며 대한민국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인 배움의 터전이 되어 주신 교수님들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서경대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여러분은 열정과 재능으로 가득 찬 훌륭한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과 노력을 통해 쌓아가는 성과들이 바로 서경대학교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가 지금처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며,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나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뜻깊은 77주년이 행운의 시작이 되어,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에 큰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경대 학우분들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방미영 (서경대신문 주간)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7년 동안 서경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며, 이는 학교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외행사에서 서경대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멋진 무대를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흡족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경대 학생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경대 학생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대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77주년을 맞이한 서경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께 감사드리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장 송민경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대 편집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21학번 송민경입니다. 올해 10월 22일은 본교 학생으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개교기념일이자 수습기자, 정기자, 부편집장을 거쳐 편집장으로서 맞는 네 번째 개교기념일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언제 졸업하나 헤아릴 수조차 없었던 날들이 어느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학한 이래 많은 걸 경험하며, 활발한 대학 생활에 더해 신문사 편집장을 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우리 학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냥 애교심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운 정 미운 정 다 든 서경대학교가 벌써 애뜻해집니다.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신문사에서 보내며, 편집장으로서 1년을 보내게 된 건 더없는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중한 지면을 통해 서경대학교의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도 개교기념일만큼은 교내 곳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려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학교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끝맺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무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심신을 안정시켜 남은 올 한 해 무탈하게 보내시고, 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교 77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서경대학교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의 행적을 기리며, 모든 서경인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부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대 부편집장 아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먼저, 7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쉽지 않았던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글은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맞이하여 적는 뜻깊은 축하입니다. 본교의 일원으로, 학교의 유일한 언론기관의 일원으로 개교 77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적을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경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늘 힘쓰는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 서경대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문·이과 상관없는 학사 구조 개편에 두려움과 혼돈이 공존했습니다. 나비효과 같이 이를 뒤따라오는 추가 문제들 또한 가득했습니다. 이 전에도 본교는 수많은 시도와 변화를 겪으며 77년이란 긴 역사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본교가 쌓아온 성과와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발걸음이 그렇듯, 이번엔 우리를 혼란에 빠트렸던 이 크나큰 변화 또한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내실이 단단히 강구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손잡고 본교의 명성을 빛낼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올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자 김나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유난히 길던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학교 외벽을 뒤덮던 녁들의 낙엽마저 떨어졌네요. 또다시 일 년이 지나가고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도 찾아왔습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이나 반복되더니, 웬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제가 신문사에서 활동한 지도 어느덧 4학기째입니다. 얼마 전 외부로 혼자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기자들과 함께하다가 혼자서 외부 취재를 하러니 살짝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저의 외향머니가 맘껏 발휘될, 제가 신문사에 들어가고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모르게 신문사를 통해 많이 성장했나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경대 신문사를 위해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자분들께 제가 많이 애정하고, 늘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의 특성상 학교 곳곳의 소식을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발전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과 학우분들의 노고에 누구보다도 깊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팍팍울로 일궈낸 서경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저 또한 애교심을 갖고 학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축하하며, 모든 서경인들의 한 해가 무탈하게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자 유지우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 제68기 정기자 아동학과 유지우입니다. 가장 먼저 서경대학교 설립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교기념 축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첫 개교기념 축사를 작성하게 되어 영광이었지만, 올해는 기자로서 마지막 축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네요. 덕분에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을 앞둔 현재까지 되돌아본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자는 다짐으로, 교내에서 개최하는 많은 행사와 활동에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활동을 하며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되는 날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제게 자신감과 열정을 심어준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의 4년은 좋은 인연들을 만나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대학 합격 후 설렘에 가득 찼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학생 신분이란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미처 몰랐지만, 눈이 쌓이고 कै월이 울려 퍼지는 요즘은 한 해가 저무는 것이 실감됩니다. 서경대학교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교직원분들, 교수님들, 학생분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간 저와 함께해 준 신문사 기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77주년을 맞은 서경대학교의 앞날에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 정기자 김경민



안녕하세요, 서경대신문 제68기 정기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3학번 김경민입니다.올해로 우리 서경대학교가 개교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학교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궈낸 세월입니다. 저 또한 서경대 학생이자 학보사 기자로서 이 성장의 세월 속 일원이 되었음에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 서경대학교의 성장에 기여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 우리 서경대학교는 내외적으로 보다 많은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가 과연 쇠퇴일지 진보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실용 교육의 성장과 발맞춰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학문적 성취를 함께 보장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도전의 성패가 단순히 학교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와 학생, 교수님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서경대학교가 더욱 자랑스럽고 발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 합시다. 그 속에서 서경대신문은 학교와 학생들을 충실히 잊겠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로 기능하겠습니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 발맞춰 우리 대학이 나아가길 제시하고, 다양한 서경대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서경대와 서경대 가족 여러분의 앞으로의 77년은 더욱 찬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자 전준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8기 정기자 광고홍보콘텐츠편수와 23학번 전준혁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고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서경대학교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길 기원합니다.

서경대학교에 재학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이 2년이란 시간은 저를 한계에 몰아붙일 때도 있었지만, 미래에 들이켜 봤을 때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경대학교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러합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워 줄 아는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냈던 시간은 저를 정확히 관통하여 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제가 받았던 좋은 영향을 다른 분들께 나눠 줄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비단 학우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해 힘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자양분이 돼 서경인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대학교의 역사와 문화는 이분들에 의해 존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교기념을 맞아 이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재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와 학우분들의 무운을 빌니다.

## 수습기자 강예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광고홍보콘텐츠편수와 강예진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어느새 개교기념일이 돌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재학생의 입장으로 개교기념일을 바라봤다면, 올해는 신문사 일원으로 개교 77주년 기념 축사를 작성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4년 서경대학교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3월 동아리 알림제부터 북적이던 대동제 For:rest, 학사 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간담회와 서명운동, 동문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 가을 체전 등 취재와 출사를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문사 기자로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순간은 학우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추억을 쌓고, 학교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은 서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개교 77주년을 더욱 값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습기자로 교내 소식을 취재하며 값진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학 내 유일 언론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의 작은 변화부터 큰 행사까지 생생히 기록하고,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경대학교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개교 77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신가은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경영학부 23학번 신가은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이라는 귀재에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신문사에 입사해 크고 작은 교내 행사를 취재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1년을 보냈습니다. 그 덕에 그동안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학교 곳곳을 더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절실히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고, 반박에 남지 않은 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돼 주었습니다. 저에게 신문사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신문사에서 보낸 사계절은 대학 입학 후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한 무언가가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시적이 언제든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은 그 자체로 멋지니까요. 단풍으로 물들었던 파스한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경대 학우들에게 있어 유독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결실이 모여 더욱 발전된 서경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성장을 향해 달려갈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기 수습기자 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김소희입니다. 서경대학교의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일원으로 서 축사의 한 단락을 장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청년기의 시작에 꿈을 펼칠 날개를 달아줄 서경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 새내기 시절,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라는 행복한 꿈을 꾸며 하루는 설렘의 나뭇잎, 하루는 떨림의 나뭇잎을 뜯으며 운을 점쳤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77년간 많은 학생을 배출하며 발전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저는 서경대신문을 보며 많은 소식과 정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꿈꾸지 못했던 경험을 했고, 안목과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문사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다른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 수습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문사 기자로서 기사를 쓴다는 것은 그 대학의 얼굴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만큼,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학 후에 느꼈던 설렘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설렘은 언젠가 다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경대학교 개교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우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구독 서비스,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나, 이용 중인가? '구독 경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독료를 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란 뜻의 구독 경제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OTT 플랫폼부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식음료 구독 서비스 등 그 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구독 서비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구독 경제의 확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단순한 신문, 우유 배달 구독을 넘어 분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진 구독 경제의 성장 배경을 짚는다. 이어 다양한 구독 서비스의 생생한 후기를 담는다. 취재부가 직접 이용한 구독 서비스 후기와 대학생 맞춤 구독 서비스

추천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의 이면과 그 전망을 담는다.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다크패턴 등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구독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고, 앞으로의 선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 우뚝 선 '구독 경제'

매일 아침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따끈한 신문 한 부와 우유 한 팩, 아마 이것이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최초의 '구독 서비스' 일 것이다.

인류 최초의 구독은 17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기 구독(購讀)'의 의미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에 더 가까웠는데, 1617년 영국에서 존 민슈(John Minshew)라는 학자가 사전 출간을 위해 자금을 모은 것이 그 시초였다. 그는 재정적 도움을 준 이들을 자신의 책 속 구독자 명단에 기재했고, 이후 완성된 책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출판물이나 유제품에 한해 활발했던 구독이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각광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수요·공급의 관계와 소비 문화의 변화에서 찾는다.

현대 사회는 물질이 풍족한 시대다. 자연스레 시장의 공급은 수요를 훨씬 넘어서게 돼 소비자들은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 소유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취향을 중시하는 문화

가 형성된 것이다. 즉, 큰 매물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하기보다 소액으로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한 소비자들이 구축한 뉴 패러다임이 바로 현대의 구독 사회다. [참고: 대신증권]

이로써 본격적인 '구독 경제'의 시대가 열렸다. 구독 경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주오라(Zuora)의 창립자인 티엔 추오(Tien Tzuo)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의 말처럼 구독 경제는 '디지털 시대의 지배적인 경영 트렌드'로 발돋움했다.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구독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발판이 됐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려면 기존 수요가 소량의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려는 수요로 바뀌면서 소매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기업들은 매출 소액 결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큐레이팅, 편리한 전자 상거래 지불 방식, 신속한 물류 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기

업들의 목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마침내 구독 경제 시장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물류 인프라의 뒷받침을 통해 더욱 완벽해졌다.

현재 구독 경제 시장은 레드 오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식품 및 소비재, 뉴스 및 미디어 등 이미 모든 산업을 점령한 탓이다. 하지만 관련 산업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구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인구 감소, 저성장, 업체 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구독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다. 심해정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구독 경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할 때와 달리 반복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매번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더스쿠피]

## 덕질의 진화, 팬과 스타의 새로운 소통법

대학생의 대표적인 취미생활 중 하나로 '덕질'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는 소속사가 운영하는 공식 팬 카페에 가입해 글을 남기며 연예인과 소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버스(Weverse), 버블(Dear U bubble)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팬들과의 소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식 팬 카페가 폐쇄되는 경우도 많아, 데뷔 초 추억이 담긴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팬들도 있다.

대표적인 소통 플랫폼 중 하나인 버블은 월 구독형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다. 연예인이 팬(구독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팬들의 화면에는 1:1 대화 형식으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구독을 시작한 날부터 디미어가 기록되며, 날짜가 늘어날수록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수 있는 문자의 글자 수도 증가한다. 메시지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 공유, 프로필 설정,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최근 연예인의 실제 손 글씨를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추가됐다. 그러나 일부 제한적인 기능은 불편

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악성 팬들의 욕설이나 성희롱을 막기 위해 금지어를 설정했으나 일례로 '닭볶음탕'이 '음탕'이라는 단어와 겹쳐 전송되지 않는 등 다소 허술한 운영이 아쉽다.

위버스는 유명 연예기획사 HYBE가 개발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초기에는 연예인이 게시물을 올리는 정도의 간단한 서비스만 제공했지만 점차 DM, 라이브 스트리밍, 앨범 및 굿즈 구매, 콘서트 티켓 구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대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위버스의 DM 서비스는 버블과 유사한 1:1 메시지 형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위버스샵 전용 결제 단위인 '젤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예인 한 명의 메시지를 구독하려면 15젤리(4,500원)가 필요하지만, 젤리 충전 단위가 4젤리, 8젤리, 20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4,500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구독 후 남은 젤리를 활용하려면 추가 충전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도적으로 반복 결제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농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이용해보는 입장에서, 메시지 구독 서비스는 나와 연예인의 개인적인 대화 공간이 생기고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올라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다. 또한 팬레터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연예인마다 메시지 전송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값을 내고도 다른 서비스를 받는 팬들의 불만과 악성 팬들이 보내는 말을 연예인이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는 점이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멤버들이 함께 일반 게시물을 올리는 것보다 1:1 유료 메시지 전송에 더 신경 쓰게 돼 전보다 멤버들의 케미를 볼 기회가 줄어든 점도 아쉬웠다. 일반 게시물은 팬 모두가 볼 수 있지만 구독하지 않은 멤버의 메시지는 볼 수 없을뿐더러, 멤버들끼리 서로 댓글을 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혼자 살아도, 삶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시류는 다양한 상품의 구독 서비스 전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혼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안정맞추는 구독 서비스들이 더러 있다.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은 식비 절약에 유용하다. 하지만 1인 가구 입장에서 장을 봐야 하는 수고와 남은 재료에 대한 부담은 곧 배달 음식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잦은 배달 음식 주문은 금전적인 지출과 쓰레기 대량 발생을 유발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습관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정량의 식재료를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가 존재한다.

'어글리어스'는 균일하고 깨끗하지 못해 규격 외 판정을 받은 못난이 야채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다. 맛과 영양분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생김새 때문에 버려지는 야채들을 우리 집 밥상의 맛있는 음식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어글리어스 외에도 적정량의 식재료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추세다. 게다가 서비

스의 체계화로 자신의 성향, 필요한 영양분, 먹고 싶은 음식 등에 따라 식재료를 구성할 수 있고 배달 주기마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고와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이에 반찬과 식단을 정하여 배송해 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도 준비한다. 기호에 맞는 음식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과 식단 관리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매력적인 구독 서비스다.

또한 1인 가구는 어떤 곤경에 처하든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하기에 막막할 때가 많다. 이 세상 모든 1인 가구들을 위해, 삶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정기 구독 뉴스레터가 존재한다. '뉴스레터'란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강행물로서 보통 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혼살레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들을 보내주는 뉴스레터의 한 종류다. 효율적인 온도 조절 방법, 자취 용품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 청약통장과 청년주택과 같은 금융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식의 글을 전송하는 이메일 구독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는 '영하의 날씨'라는 이름으로 매달 책, 음악, 전시를 아우르는 본인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유료 구독 레터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신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때로는 새로운 시야를 일깨워주는 소식지들을 통해 당신의 아침을, 새벽을,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어떤가.

이 외에도 생리대, 칫솔과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취향에 맞는 와인, 꽃다발까지 우리 삶을 다채롭게 하는 다양한 상품을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색다른 취미를 얻거나 의외의 발견을 목도할 수도 있다.

## '편리함 속 숨겨진 그림자'... 구독 서비스의 이면과 전망

구독 서비스는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 편리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어느새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과연 구독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문제점과 전망을 살펴보자.

수많은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구독 피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는 서비스의 양적 증가에 따른 피로감뿐만 아니라 계정 및 갱신 날짜 등을 관리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포함한다. 서비스 별 서로 다른 갱신 주기와 자동으로 결제되는 요금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독 피로와 더불어 구독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구독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져,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튜브는 지난 2023년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의 월 구

독료를 기존 10,450원에서 43%나 오른 14,900원으로 인상했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 플랫폼 역시 구독료를 올렸다. 이에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스트림플레이션' 혹은 구독 경제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구독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구독 번들링·결제 전문업체인 방고(Bango)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월평균 구독 서비스 이용 금액으로 30달러(약 4만 원)를 낸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에 달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매일경제]

구독 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들 쉽게 알지 못하는 '다크패턴'에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구독을 유지하게끔 유도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다크패턴 행위에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계약 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이 있다.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다크패턴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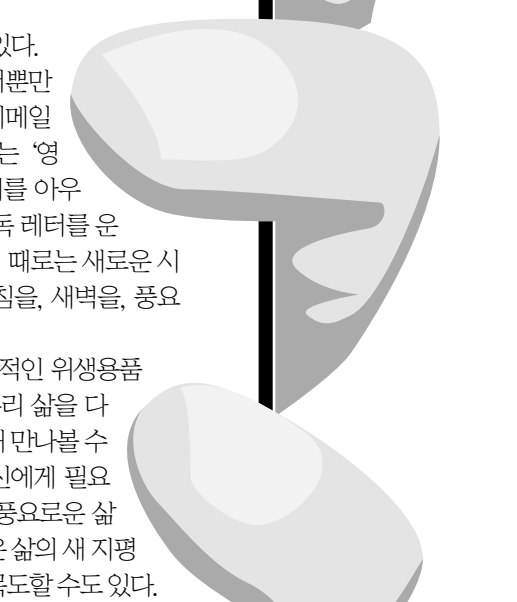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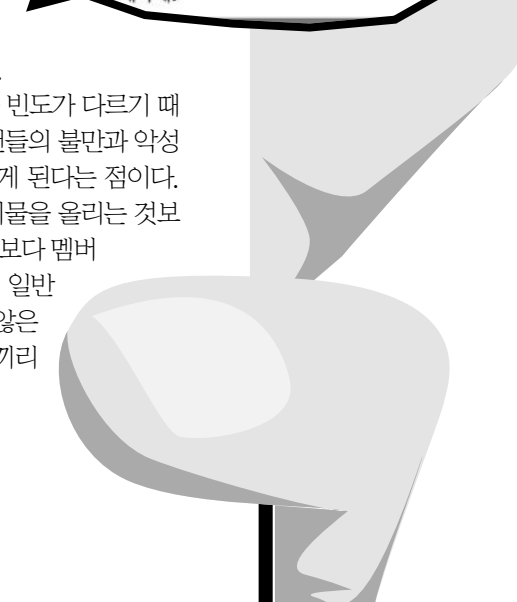
구독 서비스는 현대인을 편리한 삶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구독 경제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플랫폼 모두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구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 등을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구독 경제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출처: 어글리어스



출처: pixa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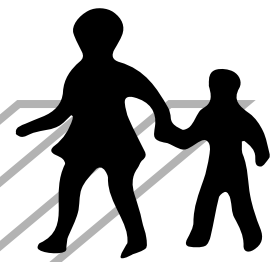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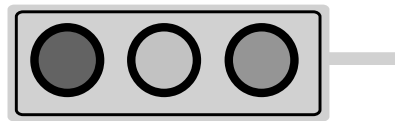
# 편리함은 어디가고 '골칫덩이'만... 전동 킥보드의 두 얼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2017년 9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 2018년 9월 국내에도 착륙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 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개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조작이 쉽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어 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했으며, 킥보드 수도 급증했다. 2024년, 공유형

전동 킥보드 대수는 서울 기준 약 4만 4천 대, 전국 기준 약 27만 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2~3명씩 같이 타는 것은 다반사며 보호 장비 없이 타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도로 위 무법자, 일명 '킥라니'가 도로·인도 할 것 없이 성행하고 음주 후 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나 운전면허 없이 몰래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친환경 도시 지향을 위해 유럽 최초로 탄소 배출이 적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도입한 프랑스 파리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불편함으로 골치를 앓았다. 난폭 운전 및 무단 주차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시민 찬반 투표를 통해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퇴출했다. 분명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도입된 것인데,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공유 전동 킥보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 거리의 무법자 '킥라니', 잇따른 전동 킥보드 사건 사고



오늘도 인도를 빠르게 질주하며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스쳐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타 위태로운 운전을 이어간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광경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도로 곳곳에서 불쑥 나타나 사고를 유발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킥라니'라는 별칭으로 부를 정도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가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른다. 면허가 없는 학생이 운전하고 있는가 하면, 두세 명씩 한 킥보드에 올라타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역주행과 음주 운전도 서슴치 않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

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다. 사망자 수는 24명, 부상자 수는 2,622명에 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치사율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되지만 이용자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건 약 6년 전인 2018년 9월부터다. 이후 이틀 시일 내 급격히 성장한 전동 킥보드 시장은 급증한 이용자수에 비해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가 등장했던 해 2018년 9월 17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에 치인 행인이 숨진 사고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만취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2023년 8월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해안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역주행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전신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2024년 역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일어 나면서 킥보드 이용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로 치어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만 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 데다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단속 법규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연일 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보행자들은 위협을 받고 있는 한편, 거리 위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유발하고 있어 어이없게도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 불법 주차, 도로 침범...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들의 모범적 대응 사례는?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를 침범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동 킥보드와 더불어 공공장소와 주택가에 불법 주차된 공유 자전거들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접수된 공유 자전거 관련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347건(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으로 323건으로 2023년(월평균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출처 : 안전신문] 급속도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차에 대한 지자체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대전 중구는 지난 3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단속 전용 차량을 도입해 기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관내 전역을 돌며 불법 주차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PM 단속 전용 차량을 통해 기존 도보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월평균 단속 건수를 10건에서 585건으로 대폭 증가시켜 실효성을 입증했다.

고양시와 광주 남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반을 꾸려 불법 주차차 단속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은 시범 조성한 바 있는 고양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단속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차할 경우 적극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여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시 1대 당 견인료 3만 원을 부과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편 민원 신고 오픈 채팅방 개설과 QR코드를 통한 원스톱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 남구의 PM 전담반은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해 민원신고시스템에 곧바로 기기 정보를 등록한다. 이후 교통약자 통행에 위험을 주는 장소의 경우 20분, 일반도로의 경우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견인을 진행한다. 남구 또한 한 대당 15,000원의 견인 요금을 부과해 PM 수거업체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대여업체의 자발적

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구청 공무원 A 씨(53)는 "PM 대여업체에서 이용자에게 불법 주차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막상 대여업체 측에 부과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며, "대여업체에도 과태료 등의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유 PM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 교육 올바른 주차차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불법 주차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킥라니'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출처 : 위클리오늘

## 전동 킥보드,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수단일까 혹은 두려움의 대상일까



2022년, 평소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타던 A 씨(22). 전동 킥보드를 타고 코너를 돌던 와중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보호 장비 없이 시속 20~30km로 타고 있던 그는 결국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한동안 가지 못했다. 당시에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 A 씨는 그 뒤로도 교내에서 이동할 때 킥보드를 애용했다.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한 그는 "어렸을 적에는 그냥 타고 편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면허를 취득하고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교내에서도 킥보드보다는 차라리 자전거를 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 B 학우(24)는 "작년에는 교내를 거닐다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교내에 존재하는 전동 킥보드에 불만을 토로했다. "주차 구역이 생기기 무질서한 주차는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스포츠카이 이동장치 주차 구역에는 공사 자재가 쌓여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평소 차를 끌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C 씨(52)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본다"며 입을 열었다. "도로에서 안전 장비 없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넘어질까 봐 무섭고, 달리고 있는 와중 인도에서 넘어진 킥보드와 부딪힐까 무섭다"며 항상 노심조사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충청북도사회조사(2023)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민들의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 의사 '있다'가 5.0%, '없다'가 95.0%로, 앞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음 이유는 △사고 위험이 높아(71.1%)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이용법을 몰라서(15.9%) △전용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없어서(5.0%) △위생 때문에 타인과 킥보드 공유가 꺼려져서(2.6%)가 뒤를 이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개선 방향을 묻자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도, 단속(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보도 주행 등)(37.7%) △전용도로 개설 등 시설 확충(28.2%) △주차 구역이 생기기 무질서한 주차(18.5%) △안전한 주차문화 확립(15.2%)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조사(2023)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 비율 5.2% 중 불만족 비율이 35.7%를 차지했다. 절반을 넘지 않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꽤 나온다. 시민들의 불만족 이유는 △안전 문제(44.1%)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부족한 대여장소(16.2%) △주차 장소 부족(10.7%) △잡은 고장(1.7%)이 뒤따랐다.

설문조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만 살펴봐도, 현재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이 여실히 보인다.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 규제가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전동 킥보드는 존재하는 내내 구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뒤집고 중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문화가 정착돼 전동 킥보드가 환경을 고려한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바란다.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한 제도의 현황



앞서 살펴봤듯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정책과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살펴보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이용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2명 이상 탑승은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한다. 이는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보다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

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개인용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과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킥보드 대여업체들과 협력해 사용자에게 안전 수칙을 알리고 계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계도 기간 이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과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했으며, 서울, 부산 등 주요 수도권에서 진행됐다. 대구시는 최고속도를 낮추면서 전년 대비 교통사고와 부상률을 각각 29%, 28%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차,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불법 주차차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을 두지 않고 관할 공무원이 즉시 견인한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검토 중이다.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 실습시험,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출처 : 뉴스1]

전동 킥보드 관련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주로 대여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대여·반납하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나 연령 등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안전 의식이다. 강화된 법적 규제와 사용자 스스로 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책임감이 함께 수반될 때, 전동 킥보드가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을 금지돼 있지만, 거리 곳곳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 주차차와 도로 침범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까지 잇따르며,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용 이동장치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봤다. 그러나 단속 강화로 인해 전기 자전거와 같은 또 다른 이동 수단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기 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거리에 방치되더라도 즉각적인 견인이 어렵다.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자전거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계속된다면, 이를 약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남기 위해 무분별한 이용을 근절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 수칙을 충실히 숙지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하자.



## 주간칼럼



최근 세계유산에 등록된 9개 서원인 남계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둔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에 대한 채록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서원 이야기수집 활동가> - “이야기보물섬으로 여행을 떠나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기획되었다. 한국의 서원 채록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서원 유럽의 삶과 경험을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인터뷰하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원에 대한 청소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연스럽게 유럽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원 문화가 미래세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기자의 눈 |

## 의무와 책임, 가벼워진 단어의 무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한다. 물론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거나 예상한 대로 나오진 않는다.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넘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자의 의무이며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이 한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그동안 경험할 수 없던 동아리나 대외 활동, 공모전, 취업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본인이 선택해 겪어볼 수 있다. 소진된 개인의 열정과 의지로 '이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결정했음에도, 실천에 옮기지 않거나 책임감 없이 활동을 중단·방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 기자의 눈 |

## 흘러간 순간들은 잊고

지난 2년 동안 신문사에 몸담으며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학생기자로서 받아야 했던 무시됨, 사소해 보일 수 있었지만 기자의 입장에서 크게 다가오던, 마음에 깊게 남은 순간들을 털어놓고자 한다.

재작년에 예은 편집장님과 팜 할머니 취재하던 어느 여름날이 생생하다. 폭염 속 노동자들에 관한 기사였기 때문에 북악관 벤치에 앉아 계시던 청소년화원 여사님을 인터뷰했다. 수습기자로서 준비가 바짝 들어, 하나라도 놓칠까 조바심하며 답변을 받아 적을 때 들리던 매미 소리. 여사님은 왜 요즘은 종이 신문이 나오지 않는지 궁금해 하셨다.

| 기자의 눈 |

## 당신의 마음에 그림책을 처방합니다

스무살이 되던 해 6월, 홀로 제주도로 떠났다. 여행 방식은 간단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풍경이 보이면 무작정 내려서 그 동네를 기웃거리는 것. 그렇게 이곳 저곳을 쓰다니다가 우연히 ‘책약방’을 발견했다.

제주 구좌읍 종달리에 위치한 책약방은 사람 두 명이 들어서기에도 비좁을 만큼 작은 무인 책방이었다. 책장과 벽면 곳곳엔 인형, 메모, 스티커 등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했는데 그 때문일까, 좁은 공간이 답답하기보단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하지만 이 장소가 특별했던 이유

이번에 <한국의서원 이야기수집 활동가> - “이야기보물섬으로 여행을 떠나요” 채록작업은 철저히 지역 학생들과의 연계를 중점에 두었다. 남계서원은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도동서원은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은 안동대학교 학생들이, 둔암서원은 나사렛대학교와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무성서원은 철보고등학교와 호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수서원은 중앙대 학생들이, 옥산서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필암서원은 장성하이텍고등학교, 삼계부사관고등학교, 문향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은 현재 총 18종류이다. 1997년에 등재된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에 등재된 승정원일기와 직지심체요절,

2007년에 등재된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 2009년에 등재된 동의보감, 2011년에 등재된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에 등재된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7년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2023년에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다.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한 중요한 유산을 말한다. 이는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은 그 형태와 내용, 보

관 방식 등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자료들도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에 포함되며, 이를 보존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문서의 디지털화, 복원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록유산의 공유와 보호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또한, 현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의 보존은 미래 세대가 우리 문화유산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서원 채록에 참여한 한 학생들의 소감을 보면서

## 주간 방미영 교수

한국의 서원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장소에서 전해져 내려온 학문과 정신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우 뜻깊었다. 서원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학문을 닦고 후학을 기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선생의 철학과 교육 정신을 되새기며,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후손과 나는 대화는 채록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한다. 한국 서원 이야기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해서 선택한 일을 쉽게 놓는다. 활동 지원서를 낼 때 간절함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면접장에서 반짝이던 눈빛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이러한 책임감 없는 행동의 핵심은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특히 동아리나 대외 활동이 단순 ‘부가활동’이란 생각이 들게 되면,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질된다. 일종의 ‘취미’나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 결과, 책임감보다 피로감을 느끼며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은 무엇이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황지연 특임교수는 “책임감은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역

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히 대처하며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책임감에 대해 정의했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 황 교수는 “약속이 많을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종의 제노비스 증후군”이라 말했다. ‘제노비스 증후군’이란 일명 ‘방관자 효과’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이다. 황 교수는 “집단 내에서 개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적 현상”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와 역할에 너무 축소된 나머지 책임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라 말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일을 벌여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을 때, 일종의 사고가 나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며 “자기조절이 잘되지 않을 때는 ‘자기조절이 잘되지 않을 때’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나태·게으름·무기력·우물 등 심리적 문제로 사회참여가 어려워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자신감과 자립심이 없어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책임감을 기르기 위한 포인트로 “공동체 의식”을 꼽았다. 아울러 심리학은 어린 시절부터 공동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행동과 행동을 지탱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태어난 이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에, 공동체 의식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대다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공동체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일 때만 타인과 함께하려 한다”며 “도리어 타인을 이용하기에 신뢰를 얻기 어렵

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돼 안정된 소속감을 얻을 수 없고, 행복과도 멀어진다”고 덧붙였다.

공동체 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감각이지만 생각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황 교수는 “공동체 감각은 소속감을 느낄 때 일어난다”며 “유아기 때는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고, 아동기 이후에는 공동체 감각을 의식해 스스로 기르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가치다.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전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그 선택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자신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만/파/식/적

##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다능인이라서 그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을 적어내야 할 때면 하고 싶은 게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다른 고민으로 머리를 싸맸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였다. 한 가지만 적어야 한다는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지기까지 해 잔뜩 인상을 찡그렸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만 고르란 말인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다 적지 못하는 작은 네모 칸이 싫었다. 남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고민이라니 북에 겨웠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학년이 돼서 얼마 전 대학원 원서를 접수하기 직전까지 계속 취업을 해야 할지, 공부를 더 할지 정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취업이랑 진학 중에서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다하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지만 그래도 다하고 싶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어떤 일든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들 한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거나 바꾸는 이들에게는 “갑피를 못 잡는다”며 “근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한 우물만 파는 게 가능할까? 대학 졸업 후 약 10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한 우물만 파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한 우물만 파는 게 더 어려울 듯하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분명 축복받은 일이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무모함을 달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책 ‘모든 것이 되는 법’의 저자 에밀리 와프너는 세상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며, 그런 사람들을 ‘다능인(multipotentialite)’이라고 칭한다. 그는 다능인을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능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네 가지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의도가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과 인생으로 해석해 내는 방법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능인이라는 개념을 접하자마자 위안이 됐다. 잘못되었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을까. 다능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 한결 편해졌다. 다능인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 우물만 파라고 하는 건 건주위지도 모른다. 자신이 다능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 우물을 파야 한다.

그러나 다능인에게는 본업 이외에 개인의 성장과 즐거움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사이드 프로젝트(Side project)’가 필수적인 듯하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분명 한 가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고 싶으면 해 보자. 자아를 한 가지로만 규정짓고 타인의 평가를 꼼꼼히 살피면 아까운 인생이다. 무수한 다능인들이 자신이 다능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 사실

## 대학가에 퍼진 ‘마약 주의보’, 전국 2위 대학생 연합 동아리의 실체

최근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사건이 다수 적발됐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 유명 명문대 재학생과 의·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석사시험(LJET) 응시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 회장 A 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 ‘간부’를 개설하고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약 17차례 마약을 판매했다. A 씨는 동아리 가입 시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을 무료나 저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직접 면접을 봐 회원들을 모집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이 모집됐고, 조직적인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다.

마약 유통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22년 11월 회장 A 씨는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했고, 12월부터 동아리 임원들에게 마약을 권했다. 이후 A 씨와 임원들은 동아리 회원들에게까지 액상 대마와 LSD, 필로폰 등의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의 마약을 공동 구매 후,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00만 원의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했으며, 약 9,000여 명이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증거인멸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필자는 수년 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캠퍼스픽’에서 해당 동아리의 모집 공고를 봤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어 연합 동아리와 대외활동을 찾던 중 접하게 됐다.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친목 동아리인 줄 알고 지나갔지만, 마약 유통으로 이슈된 동아리가 해당 동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마약이 대학생들의 일상에 파고든 원인은 무엇일까? 주된 요인으로 접근성과 심리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진행한 ‘2024 대학생 마약 사용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은 마약 사용 원인 중 ‘접할 기회가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마약은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플랫폼에 비교적 익숙한 대학생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더해 스낵의 의미 인식이 낮고 스와로움의 높을수록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이익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출처 : 한국경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들일수록 마약을 일종의 탈출구로 여겨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B 씨(24)는 “약물중독은 대학생인 나에게 먼 얘기라 생각했는데, 동아리 마약 사건을 보니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이들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위한 치료 시스템이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기에, 마약으로의 접근성을 일체 차단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강한 법적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마약에 이미 빠진 이들에게는 처벌만이 아닌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여부를 묻자, 잠시 고민하더니 “어차피 동기를 다 학교신문 안 보니까 실지 양해를 구하면, 거절하면서도 사정은 잘 나왔으니 보내달라는 학우들이 있다. 우리를 그저 사진 기사 정도로 보는 걸까. 만약 학생 기자가 아닌 방송국 취재진이였다면, 그렇게 쉽게 사진을 보내 달라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 “사진 하나 보내 신문을 발행했다. 간식과 함께 학우들의 손에 신문을 쥐어 주며 서경대신문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보이는 건 못차리 대신 깔린 신문들이었다. 팜 흘려가며 쓴 기사들은 발에 밟혀 구겨졌고 결국 그 신문을 다시 주운 건 우리였다.

출사 때도 고난은 이어진다. 학우들의 사진을 찍고 신문에 실어도 될지 양해를 구하면, 거절하면서도 사정은 잘 나왔으니 보내달라는 학우들이 있다. 우리를 그저 사진 기사 정도로 보는 걸까. 만약 학생 기자가 아닌 방송국 취재진이였다면, 그렇게 쉽게 사진을 보내 달라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 “사진 하나 보내 신문을 발행했다. 간식과 함께 학우들의 손에 신문을 쥐어 주며 서경대신문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보이는 건 못차리 대신 깔린 신문들이었다. 팜 흘려가며 쓴 기사들은 발에 밟혀 구겨졌고 결국 그 신문을 다시 주운 건 우리였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한 학우에게 인터뷰 후 실명 공개

여부를 묻자, 잠시 고민하더니 “어차피 동기를 다 학교신문 안 보니까 실지 양해를 구하면, 거절하면서도 사정은 잘 나왔으니 보내달라는 학우들이 있다. 우리를 그저 사진 기사 정도로 보는 걸까. 만약 학생 기자가 아닌 방송국 취재진이였다면, 그렇게 쉽게 사진을 보내 달라 말을 꺼낼 수 있었을까. “사진 하나 보내 신문을 발행했다. 간식과 함께 학우들의 손에 신문을 쥐어 주며 서경대신문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보이는 건 못차리 대신 깔린 신문들이었다. 팜 흘려가며 쓴 기사들은 발에 밟혀 구겨졌고 결국 그 신문을 다시 주운 건 우리였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면서도 어른 독자를 2차 독자로 고려해 창작’되는 아동문학에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니,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림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림책을 포함한 아동문학은 전통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장르로 알려져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책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어른이다. 또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보호자 역시 어른일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이 아동문학을 진지한 독서의 대상으로 여기며 애고 있다. 그렇기에 ‘어린이 독자를 1차 독자로 하

해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시각적 문해력은 비주요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오늘날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선과 색, 구도 등을 통해 어른들은 경이로운 사고방식을 유연하고 깊이 있는 사고로 변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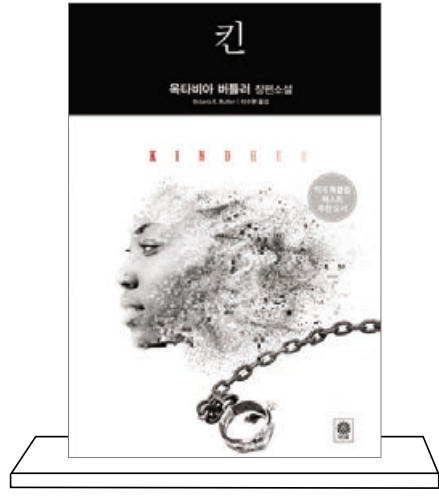
또한 그림책과 아동문학은 치유의 역할을 한다. 그림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러한 무의식적 회귀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잃어버린 순수와 용기를 되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책

시공간을 넘나드는 차별의 초상 - 킨 옥타비아 버틀러



▲ 출처 : 예스24

1976년을 살아가는 흑인 여성 '다나'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다 1810년의 미국 메릴랜드주에 떨어진다.

로 흑인을 노예 삼는 루퍼스를 구해야 했다. 자유를 박탈당한 흑인 여성이 우월한 백인 남성을 지켜야 한다.

다나수의 흑인은 백인에게 종속된 노예의 삶을 살았다. 허락 없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로 금기시됐으며 쓰임이 다하면 다른 곳에 팔리는 수모를 감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독자가 시대 상황을 고려하게끔 설명한다. 흑인이 백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다나와 루퍼스의 관계가 시선을 끈다. 다나가 처음 과거로 왔을 때 만났던 어린 루퍼스는 그녀를 통해 흑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 1976년으로 떠나려는 다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등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백인'으로 변모했다.

무려 52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소설임에도 단숨에 읽어내렸다. 다나가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들의 처절한 현실에 책을 덮을 수가 없었다.

독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은가. 혹은 지금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은가. 혹은 지금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모험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모험이 되는 순간 -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모험은 계속된다



▲ 출처 : 아이즈매진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은 자신의 영화에 독특한 미학을 관철하기로 유명하다. 그의 미학은 강박적인 대칭적 구도와 파스텔 색조의 색감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정도의 매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AWA(Accidentally Wes Anderson), '우연히 웨스 앤더슨'은 일상에서 웨스 앤더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을 포착해 공유하는 커뮤니티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모험은 계속된다'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다.

전시장에 처음 들어서면, 웨스 앤더슨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속 호텔 카운터가 등장하며 카드 한 장을 나누어 준다.

한눈에 이목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건축물, 표지판, 자연환경 등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일정한 구도로 나열하니 통일감과 함께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생경했다.

전시의 다양한 구성도 인상 깊었다. 두 갈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은 중간중간 뚫린 틈새 사이로 보게 되는 진행 방식은 매우 흥미로웠다.

전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 생물, 건

축물 사진들의 연속은 황홀했다. 모로코에서 아일랜드, 사하라 사막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시시각각 바뀌지만 하나하나 각인되는 엄청난 풍경 속이 해일처럼 마음을 집어삼켰다.

전시의 캐치프레이즈는 '모험'이었다. "모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와 같은 구절들이 전시 내내 적혀 있어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주제적인 삶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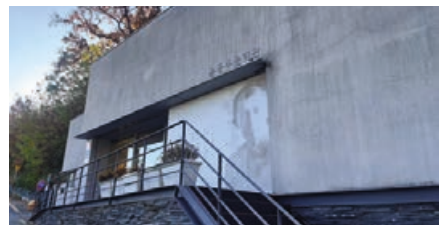
아름답고 놀라운 사진들의 향연,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모험을 꿈꾸게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동기가 만들어지는 전시였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u@naver.com)

- 전시일정 : 2024년 10월 18일 ~ 2025년 4월 13일
· 전시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3F 그라운드시스 센트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입장 마감 오후 6시)
· 관람비용 : 14,400원

오늘의 장소

운동주의 자취를 찾아서 - 운동주 문학관



운동주(1917~1945) 시인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일에 대한 고뇌와 열망을 노래한 민족시인이자, 감수성이 풍부한 그의 시에는 민족에 대한 애정과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이 짙게 묻어있다.

서울 시내에 그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평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이는 작은 공간, 운동주 문학관이 그곳이다.

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운동주의 시 또한 영혼의 물결을 새롭게 흐르도록 하니, 우리 영혼의 기압장으로 재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주 문학관은 시인채, 열린 우물, 닫힌 우물 총 3곳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채에서는 운동주 시인의 사진과 유품 원고를 직접 볼 수 있다.

시인채를 지나 열린 우물 전시실로 향했다. 이곳은 시인채와 닫힌 우물을 연결하는 중정으로, 아무런 전시물이 없지만 운동주

시의 주요 소재가 되는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윽고 이어지는 닫힌 우물은 열린 우물의 반대 선상에 있는 전시실로, 시인 관련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었다.

운동주 시인의 정기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운동주 문학관을 추천한다. 비단 시인 운동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소년 운동주를 마음으로 느끼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이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u@naver.com)

- 주소 : 서울 중로구 창의문로 119
· 휴무여부 :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운영시간 : 10:00~18:00, 17:30 입장 마감 (13:30 ~ 14:00 휴게)

오늘의 영화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 - 비긴어게인 (2014)



▲ 출처 : 네이버영화

지난 2024년 개봉 10주년을 맞은 영화, '비긴어게인'이 극장가로 돌아와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며 비긴어게인을 인생 영화로 자리 잡게 만든다. 영화 시작부터 흐르는 잔잔한 선율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들을 영화 속으로 몰입시킨다.

과거 유명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현재는 녹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댄'이 있다. 그는 프로듀서로 있던 회사에서 해고되고, 아내와 딸에게도 외면받는 비참한 삶에 회의를 느낀다.

그레타가 댄의 제안을 고민하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뮤직바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자연스러움이다. 그레타는 남자 친구이자 음악적 파트너인 '데이브'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새 스타가 된 데이브는 초심을 잃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고 밝힌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거리 밴드를 결성하여 음반 제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댄의 프로듀싱에 따라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점 완성되는 음악은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한편, 영화의 대표 OST로 알려진 '로스 스타(Lost Stars)'는 그레타가 데이브에게 선물한 곡이다. 시간이 지나 그레타의 빈자리를 느낀 데이브는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며 이 노래를 부른다.

삶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낀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모습과 그들의 진심이 투영된 음악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다. 지치거나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오늘의 음악

돌아온 브릿팝 음악의 전설, '오아시스'

90년대를 대표했던 전설적인 밴드, 오아시스가 15년 만에 재결합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음색을 지니고 있다.



▲ 출처 :



▲ 출처 : 바이브



▲ 출처 : 바이브

♪ 〈Wonderwall〉 - Oasis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would like to say to you But I don't know how Because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you're my wonderwall"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 답한다면 바로 본인의 세상을 넓혀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Don't look back in anger〉 - Oasis

"And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we're walking on by Her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모든 면을 사랑했고, 모든 면을 질투하며 증오했던 전 애인과 치기 어린 시절에 했던 사랑이 떠오른다. 지난날에 대한 좋은 추억만 기억해달라는 헤어진 연인의 소망이 담긴 가사는 실연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추억을 부른다.

♪ 〈Whatever〉 - Oasis

"Free to be whatever you Whatever you say, if it comes my way, it's alright"

타인의 시선이 본인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20대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무언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도피하고 싶을 때, 어두운 하룻길을 밝혀주던 한 줄기의 빛 같은 노래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금메달 안겨준 안세영의 노력, 28년 만의 영광 속 감춰진 씩씩한 진실



▲ 출처 : 중앙일보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안세영 선수는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의 대결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 뒤로 지난 12월 17일에 작심 발언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우승 여부

난 10월 22일에 열린 국경감사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혐의의 수많은 논란이 다뤄졌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태도는 의원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국경감사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안 선수의 폭로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안 선수는 파리 올림픽 이후 지난 11월 24일에 중국에서 열린 2024 중국마스터즈 월드투어 슈퍼 750 대회에서 가오팡제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 선수는 파리 올림픽 이후 지난 11월 24일에 중국에서 열린 2024 중국마스터즈 월드투어 슈퍼 750 대회에서 가오팡제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로 지난 12월 17일에 작심 발언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우승 여부

와 상관없이 대표팀의 상황을 알렸을 것이니 고 올림픽에서 이기든 지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비판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28년 만에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가 다시금 쓰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선수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 선수는 자신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에서 벌어진 사태를 놓고 "선수로서 목표를 찾았으며 선수로서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